2016312761 여혁수 비판적 글쓰기

<중, 고등학교 일진 문화, 누가 초래한 것일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가 24.6%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가 14.2%로 조사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진 문화가 만연하고, 청소년들은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느낌이 무디어질 정도로 폭력 속에서 지내고 있다. 이것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소위 ‘일진’ 문화이다. 일진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되어 학교나 학년 내에서 싸움을 잘하거나 잘 노는 것으로 유명한 아이들을 의미한다. 지금 학교에서는 일진회 멤버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일반 학생들 중 소수는 빵을 사오는 이른바 ‘빵셔틀’이다. 일진들은 돈을 뺏어 상납을 한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글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던지며 일진문화의 문제점을 샅샅이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비판하며 해결방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일진들이 일진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알아보자. 일단 일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물질적인 이익이 매우 많다. 별 힘 안들이고 돈을 뺏고, 자신이 귀찮은 것들을 시킨다. 또한 일진들은 자신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신체적인 힘이 세고, 관계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자기로 인해 제압을 당하니까 자존심, 자신감은 오를 때로 오르고, 결국엔 눈에 뵈는게 없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또래 아이들을 어떠한 친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인성과 사고방식을 뇌 속에서 버려버리고 오로지 물질적인 이득만 바라보고 지내는 친구들인 것이다.

도덕적, 사회적 그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러한 행위들이 왜 아직도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당하는 학생들도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정말 싫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어떻게 조치를 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며 마음을 썩인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고자질하는 것에 대한 꺼려지는 마음이 문제 해결을 향한 마음보다 커지는 것이다. 너무 안타깝다. 그 굴욕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가만히 참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다. 나도 일년 전 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마음을 잘 이해는 한다. 하지만 나는 당하는 학생들의 그 바보 같은 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당하고 있는 현장에는 아무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는 선생님, 학부모님들도 문제이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체벌은 없어진지 오래고, 거의 직접적으로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 학생의 말도 안되는 교활한 설득에 넘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심지어 학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이들이 워낙 학원도 다녀야 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이이다. 부모님들도 일하기 바쁘시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님이 집에서 대화하거나 이럴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어느 한 쪽도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다. 피해자가 되는 학생들은 어떤 행위를 당하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된다. 모든 학생들이 행위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하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해야한다. 교사들은 의심되는 학생들을 방과후에도 집중적으로 관찰하거나, 피해자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등의 학습적 교육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을 해야한다. 물론 학교에 상담 교사나 학생부장, 경찰 같은 학습적 교육이 목적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신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들이 상담을 잘 하러 가지 않고, 학생부장, 경찰도 까 놓고 말해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영화에서만 보던 과거 체벌이 있을 때의 매서운 학생부장은 이제 없다. 요즘 경찰이 학교에 있다해도 교사의 신고가 들어와야 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식이 대부분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딱히 없다. 경찰답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학부모님들도 바쁘시더라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따로 마련하거나,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외식, 나들이를 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일진 문화 발생의 근본적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해결책을 나름대로 나타내 보았다. 근본적으로 가해자 학생들에게만 전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학생들, 교사, 학부모, 경찰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다. 교내 일진 문화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지속된 것은 학생들만의 탓일까?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반성과 그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사태의 영원한 종결은 없다고 나는 본다.